

# 『素問·生氣通天論』의五味傷에 대한 考察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對於『素問·生氣通天論』의五味傷之考察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素問生氣通天論五味傷의內容提起了五藏資於五味, 但是過多則反傷五藏. 這篇文章의注釋可以分爲如此三條. 其一是改正本文의甘, 苦字, 一致與五行配屬. 其二是不修訂本文, 解釋本文以五行之間相互關係. 其三是以五味의性質解釋本文.

論者解釋本文以藏氣法時論의文章. 其解釋就是以藏氣法時論苦欲補瀉의瀉解釋本文의內容, 連系兩篇의內容, 就可以看到肝-酸, 心-甘, 脾-苦, 肺-辛, 腎-鹹의配屬關係. 這雖然與五行配屬沒有關係, 但是用五味의性質, 可以解釋本文의五味過多의病變.

關鍵詞 : 生氣通天論, 五味傷, 藏氣法時論, 苦欲補瀉

### I. 序論

자연계속의 무수한 생물체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그 생활 방식이 각기 다르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처한 환경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 원칙은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일고 있는 “웰빙” 바람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연에 순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天人相應”이라

고 표현하면서, 인간이 자연계의 법칙과 변화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방식을 조절하여 天氣를 받아들이고, 五味를 적절하게 섭취하여 地氣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의 규율에 순응해 가야 하는 것이다.

적응 혹은 순응은 항상 적절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니,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환경이라도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제시한五味傷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이 水穀之氣인五味에 의해서 생존하고 건강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五味와 五藏의 배속에 있어 기존의 오행배속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편으로 전체

\* 교신저자 : 방정균,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bjkdwcw@mail.sangji.ac.kr, Tel : 033-730-0668

적인 문장 구도상 五味가 過했을 때 나타나는 병변을 설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등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역대 의가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서, 아울러 『素問·藏氣法時論』의 문장을 통해 본 문장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五藏이 五味에 근본하여 생겨나지만, 五味의 섭취가 지나치게 되면 도리어 오장을 傷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陰之所生,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 是故味過於酸, 肝氣以津, 脾氣乃絕. 味過於鹹, 大骨氣勞, 短肌, 心氣抑. 味過於甘, 心氣喘滿, 色黑, 腎氣不衡. 味過於苦, 脾氣不濡, 胃氣乃厚.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央. 是故謹和五味, 骨正筋柔, 氣血以流, 腠理以密. 如是則骨氣以精, 謹道如法, 長有天命. (陰인 오장이 생하는 바는 근본이 五味에 달려있으나, 陰인 오장이 傷하는 것도 五味에 달려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酸味が 지나치면 肝氣가 넘쳐나 脾氣가 이에 끊어지게 된다. 鹹味が 지나치게 되면 大骨의 기운이 수고롭고 肌肉이 오그라들고 心氣가 억제된다. 甘味が 지나치게 되면 心氣가 피지지 못하여 숨을 헐떡이고 가슴이 그득하게 되고, 얼굴색이 검어지고 신기가 不衡하게 된다. 苦味が 지나치게 되면 脾氣가 적셔지지 못하여 胃氣가 이에 두터워지게 된다. 辛味が 지나치게 되면 筋脈이 늘어지게 되고 정신이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五味를 삼가야 뼈이 곧바르게 되고 筋이 부드러워져 氣血이 잘 흐르게 되고 腠理가 치밀해지니, 이와 같으면 骨氣가 정밀해 진다. 五味를 조절하는 방법을 양생의 법과 같이 하여야 길이 天命을 들 수 있게 된다.)<sup>1)</sup>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열거한 모든 의가들이 五味가 過하여 五藏을 傷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변의 설명에 있어서는 의가들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오행의 상호관계, 즉 相克과 相侮 등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오미의 성질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행의 상호관계와 오미의 성질 등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병변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甘味와 苦味の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오행배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문을 수정하여 이해하는 의가도 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의가들마다 달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바, 본문에서 각 의가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素問·藏氣法時論』의 문장을 통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五味의 五行配屬에 의거해 원문을 수정한 경우

오미의 오행배속에 의거해 원문을 수정하여 설명한 의가로는 楊上善<sup>2)</sup>과 丹波元堅이 있다. 이 두 의가는 甘味와 苦味를 각각 脾와 心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五味를 오행배속과 맞추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楊上善

是故味過酸, 肝氣以津, 肺氣乃絕.  
味過于鹹, 則大骨氣勞, 短肌氣抑.  
味過苦, 心氣喘滿, 色黑, 腎不衡.

-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7쪽
- 2) 楊上善은 甘味와 苦味の 순서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또한 五味의 과다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病變에 있어서도 여러 곳에서 본문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후세 의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味過于甘, 脾氣滯, 胃氣乃厚.  
味過于辛, 筋脈弛弛, 精神乃央.<sup>3)</sup>

이상에서 보듯이 『太素』에 나타나있는 문장은 현존하는 『內經』의 문장과 비교할 때 여러 곳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五味의 배속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苦味”의 경우 『內經』에서는 “甘味”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楊上善은 苦味를 주장하면서, “心氣喘滿”의 병변에 대해서는, 本味에 해당하는 苦味를 과다하게 섭취하여 생기는 自傷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色黑, 腎氣不衡”의 병변은 苦味の 과다로 心氣가 過盛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sup>4)</sup>. 한편 “甘味”의 경우 『內經』에서는 “苦味”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楊上善은 甘味를 주장하면서, 병변을 甘味の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5)</sup>. 특이한 것은 『內經』원문의 경우 “脾氣不濡”로 되어 있는 것을 “脾氣濡”로 고치면서, 甘味の 과다로 인해 脾氣의 적서주는 작용이 손상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丹波元堅

味過于甘, 太素甘作苦. 衡作衛. 楊曰苦以資心, 今苦過傷心. 堅按作苦爲是. 蓋言味過于苦, 心氣過實, 以爲喘滿. 火亢血燥, 故色黑, 水火不濟, 故腎氣不衡也. (『內經』의 ‘味過于甘’에 대해 『太素』는 ‘甘’을 ‘苦’로 썼고, ‘腎氣不衡’에 대해 ‘衡’을 ‘衛’로 고쳤다. 楊上善은 “苦味는 心을 자양하는데, 지금 苦味가 지나쳐 心을 傷한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보건대, “苦”로 바꾸는 것이 옳다. 苦味가 지나치면 心氣가 지나치게 實하게 되므로 喘滿하게 된다. 火가 항성하면 血이 다르게 되므로 얼굴색이

검게 되고, 水火가 不濟하므로 腎氣가 不衡하게 된다.)<sup>6)</sup>

丹波元堅은 甘味를 苦味로 바꿔야 한다는 『太素』의 주장을 따르면서 “心氣喘滿”을 本味를 과다하게 섭취함으로써 인해 心氣가 過實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色黑, 腎氣不衡”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苦味の 과다로 인해 火가 盛해지게 되면 血(津液)이 마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얼굴색이 검게되고<sup>7)</sup>, 火가 盛함으로 인해 水火不濟를 초래하여 腎氣가 不衡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味過于苦, 太素苦作甘, 無不字. 楊曰甘以資脾氣, 今甘過傷脾氣滯, 令心悶, 胃氣厚盛也. 注曰厚者敦厚也, 壅滿也. 經云土太過曰敦阜是也. 堅按作甘爲是. 據過酸例, 不字當作以字. 亦言味過于甘, 則脾氣過實, 胃氣敦阜也. 尤怡醫學讀書記曰脾氣不濡, 胃氣乃厚者, 由脾不能爲胃行其津液, 而胃亦不能輸其精氣于脾也. 胃不輸, 脾不行, 則津液獨滯于胃, 而胃乃厚, 厚, 猶滯也. 寧強厚之足言哉, 此說未必然. (『內經』의 ‘味過于苦’에 대해 『太素』는 ‘苦’를 ‘甘’으로 썼고, ‘無’자가 없다. 楊上善은 “甘味는 脾氣를 자양하는데 지금 甘味가 지나쳐 脾氣의 적서주는 작용을 손상시켜 心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胃氣가 두텁고 성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注에 말하기를 “厚는 敦厚하다는 뜻이요 응체되었다는 뜻이다. 『經』에 말하기를 ‘土가 많이 쌓인 것을 두터운 언덕이라고 한다.’라 하니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건대 ‘甘’으로 고치는 것이 옳고, 過酸의 예에 근거하면 ‘不’자는 마땅히 ‘以’자로 고쳐야 하니, 甘味를 많이 먹으면 脾氣가 지나치게 實하게 되어 胃氣가 두터워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尤怡는 『醫學讀書記』에서 “脾氣

3) 楊上善 撰注,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74~75쪽

4) 前揭書, 74쪽

“苦以資心, 今苦過傷心, 喘滿嘔吐, 則腎氣無力, 故色黑而不能衛也.”

5) 前揭書, 74쪽

“甘以資脾氣, 今甘過傷脾氣濡, 令心悶胃氣厚盛也.”

6) 丹波元堅, 『素問紹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406쪽

7) “火亢血燥”하여 얼굴색이 검게 된다는 것은 水의 本色인 黑色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津液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즉, 火가 勝하여 津液이 타버린 결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不濡, 胃氣乃厚'는 脾가 胃를 위하여 그 진액을 운행하지 못하고, 胃는 그 정기를 脾로 보낼 수 없는 것이다. 胃가 보내지 못하고 脾가 운행하지 못하니, 진액이 홀로 胃에 적체되어 胃가 아예 두터워 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차라리 强厚(뻣뻣하고 두터워 진다)라고 하면 말이 될지언정, 이 설명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sup>8)</sup>

苦味에 있어 『太素』의 주장을 따라 甘味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병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양상선의 주장을 따르고 있지 않다. 즉 "脾氣不濡"에 있어 양상선은 甘味の 과다로 脾의 적서주는 작용이 손상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비해 丹波元堅은 脾氣가 지나치게 적서져 濕한 곳에 빠져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두 의가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酸-肝, 苦-心, 甘-脾, 辛-肺, 鹹-腎으로 연결이 되어 五味의 오행배속과 일치하게 된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五味의 과다 섭취로 인한 병변의 설명을 비교적 간단하게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가들은 원문을 고치지 않은 채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바, 원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 2.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해석한 경우

대부분의 의가들은 원문을 그대로 보존한 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병변의 해석방법에 있어서 五味를 五行배속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물론, 오행배속으로 병변의 설명이 힘든 甘味와 苦味の 경우, 몇몇 의가들은 甘味の "滯緩"한 성질과 苦味の "燥"하게 하는 성질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가들이 오미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王冰

8) 丹波元堅, 『素問紹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406쪽

王冰은 酸味와 甘味<sup>9)</sup> 그리고 鹹味에 있어서는 五味의 오행배속으로 설명을 하면서, 苦味の 경우는 "燥"하게 하는 성질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辛味에 있어서는 「藏氣法時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肝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筋脈沮弛, 精神乃央'을 병변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은 왕빙의 해석은 병변의 설명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또한 辛味の 경우는 과다 섭취로 인한 병변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 2) 馬蒔

馬蒔는 五味의 성질에 대한 분석은 배제한 채, 일관되게 五味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마시의 병변에 대한 해석을 분석해보면 自傷, 五行의 相克, 子乘母, 母乘子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9) 甘味傷에 있어서 왕빙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甘味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滯緩'하게 하는 성질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心氣喘滿'을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甘味가 오행상 土에 배속되는 것을 이용하여 '土克水'의 관계로 '色黑, 腎氣不衡'의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10) 郭藹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54쪽

"酸多食之, 令人痿, 小便不利, 則肝多津液, 津液內溢則肝葉舉, 肝葉舉, 則脾經之氣絕而不行, 何者? 木制土也. 鹹多食之, 令人肌膚縮短, 又令心氣抑滯而不行. 何者? 鹹走血也. 大骨氣勞, 鹹歸腎也. 甘多食之, 令人心悶, 甘性滯緩, 故令氣喘滿而腎不平, 何者? 土抑水也. 衡, 平也. 苦性堅燥, 又養脾胃, 故脾氣不濡, 胃氣強厚. 沮, 潤也. 弛, 緩也. 央, 久也. 辛性潤澤, 散養於筋, 故令筋緩脈潤, 精神長久. 何者? 辛補肝也. 「藏氣法時論」曰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11)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27쪽

"是故酸所以生肝也, 味過于酸, 則肝氣津淫, 而木盛土虧, 脾氣從茲而絕矣. 鹹所以生腎也, 味過于鹹, 則大骨者, 則上筋之所謂高骨也, 腎氣反傷, 大骨氣勞, 水邪克火, 令人肌肉短縮, 心氣抑滯矣. 甘所以生肉也, 味過于甘, 則脾邪有餘, 子來乘母, 從前來者爲實邪, 而心氣喘滿, 且土往克水, 傳其所勝, 黑色外見, 腎氣不得其平矣. 苦所以生心也, 味過于苦, 則苦反傷心, 母邪乘子, 火氣

## 3) 吳崑

吳崑은 酸味, 甘味, 鹹味에 있어서는 오행배속에 맞추어 오행의 상극관계로 병변을 설명하였고, 고미의 경우는 “堅燥”하게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心氣喘滿”의 경우는 왕빙과 마찬가지로 감미의 “滯緩”한 성질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辛味の 경우에 있어서는 일면 왕빙의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 설명방법에 있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筋脈沮弛”에 대해서는 왕빙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辛味는 오행배속상 金에 속하는데, 金은 水를 생하게 되므로 水가 筋을 길러주게 되고 그 결과 筋脈이 윤택하면서 이완되어 자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본문 전체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精神乃央”에 대해서는 신미의 “發散”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神氣가 수렴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병변으로 설명을 하여 왕빙과 다근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12)</sup>.

## 4) 張介賓

張介賓은 苦味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행의 상극관계로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여러 의가들의 주장을 따라 甘味の 경우는 “心氣喘滿”을 甘味를 과다하게 섭취한 결과 上焦에 滯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辛味를 과다 섭취하여 나타나는 “精神乃央”의 경우는 吳崑의 주장을 따라 辛味の 發散하는 성질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苦味の 경우는 독특하게 고미의 과다 섭취로 心陽이 손상을 입어 脾를 길러줄 수 없는 것, 즉 “火不生土”로 설명하고 있다. 즉 心이 脾를 길러주지 못하여 脾氣가 윤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脾氣가 운화 작용을 못하여 胃氣가 滯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 5) 張志聰

張志聰은 오미를 일관되게 오행배속에 맞추어 오행의 상극관계로 병변을 주로 설명하면서, 몇몇 병변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甘味の “心氣喘滿”에 대해서 甘味를 過하게 섭취하면 土가 實하게 되어 心氣가 자식인 脾로 전해지지 않아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苦味에 있어서는 子母의 氣가 상통한다는 것과 陽明脈이 心과 絡屬의 관계가 있다는 전제아래, 苦味를 過하게 섭취하면 母의 氣인 心이 盛하게 되어 결국 子의 氣인 胃氣가 強해진다고 보고 있다. 胃氣가 強해지면 脾陰과 끊어지게 되어 脾가 胃를 위해 津液을 수포하지 못하게 되어 “脾氣不濡”의 병변이 나타나고, 脾가 津液을 수포하지 못함으로 인해 “胃氣乃厚”의 병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辛味の “精神乃央”의 경우는 辛味가 盛하게 되면 燥하게 되어 津液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신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4)</sup>.

燥土, 脾氣不能濡澤, 胃氣乃反加厚矣, 蓋邪氣有餘, 則胃厚也. 辛所以生肺也, 味過于辛, 金邪克木, 筋脈沮弛, 精神至半而廢矣.”

12) 吳崑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5~16쪽

“酸味入肝, 若過于酸, 則肝多津液, 木實則克土, 故脾絕. 鹹入腎入骨, 能軟縮諸物, 故過食之能令骨勞短肌. 又鹹從水化而走血, 水勝則火滅, 故心氣抑. 甘性滯緩, 故令氣喘滿, 甘從土化, 土克則害乎水, 故見色黑而神氣不平. 衡, 平也, 所以稱物而取平者也. 苦性堅燥, 故脾氣不濡, 胃喜燥, 故胃氣強厚. 沮, 潤也. 弛, 緩也. 央, 殃同. 辛從金化, 生水而養筋, 故令筋脈潤而弛長. 辛主發散, 久散則神氣不收, 是為精神殃也.”

13) 張介賓 編著, 『類經』, 一中社, 1980, 394~395쪽

“津, 溢也. 酸入肝, 過于酸則肝氣溢, 酸從木化, 木實則克土, 故脾氣乃絕. 鹹入腎, 腎主骨, 過于鹹則傷腎, 故大骨氣勞, 勞, 困劇也. 鹹走血, 血傷故肌肉短縮. 鹹從水化, 水勝則克火, 故心氣抑. 甘入脾, 過于甘則滯緩上焦, 故心氣喘滿, 甘從土化, 土勝則水病, 故黑色見于外而腎氣不衡于內. 衡, 平也. 苦入心, 過于苦則心陽受傷, 而脾失所養, 氣乃不濡. 濡者, 潤也. 脾氣不濡則胃氣留滯, 故曰乃厚. 厚者, 脹滿之謂. 五味論曰, 苦入于胃, 五穀之氣皆不能勝苦, 苦入下脘, 三焦之道皆閉而不通, 故變嘔者, 其義亦此. 濡音儒. 沮, 壞也. 弛, 縱也. 央, 殃同. 辛入肺, 過于辛則肺氣乘肝, 肝主筋, 故筋脈沮弛. 辛散氣則精神耗傷, 故曰乃央. 沮音莊, 將魚, 將御二切. 弛, 施, 始二音.”

6) 高士宗

高士宗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가와 같이 五味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대부분의 병변을 五行간의 相克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몇 가지 병변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甘味の “心氣喘滿”에 대해서 高士宗은 甘味가 과다하게 되면 土氣가 盛하여 水가 억제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 水가 虛하게 되어 火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心氣喘滿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苦味の 과다에 있어서는 “火克金”의 원칙아래 설명하고 있다. 즉 肺는 天氣이고 脾는 地氣인데, 苦味の 과다로 金이 억제를 받아 天氣가 내려가지 못함으로 인해 地氣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脾氣不濡”의 병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脾氣가 不濡함으로 인해 胃가 지나치게 燥하게 되어 胃氣가 燥實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辛味の 과다에 있어서 筋과 脈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精神을 脈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辛味가 과다하게 되면 “金克木”의 상황이 발생하여 陰精이 肝이 主하는 筋을 영양하지 못하게 되고, 木이 金의 억제를 받아 쇠퇴함으로 인해 火를 生하지 못하여 心이 主하는 脈이 손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火가 生하지 못함으로 神氣가 脈에 충만되지 못하게 되므로 “精神乃殃”의 병변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5)</sup>.

14)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注』,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9쪽

“酸味入肝, 若過于酸, 則肝多津液, 津溢于肝, 則脾氣乃絕其轉輸矣. 大骨, 腰高之骨, 腎之府也. 過食鹹則傷腎, 故骨氣勞傷, 水邪盛則侮土, 故肌肉短縮. 水上凌心, 故心氣抑鬱也. 味過于甘, 則土氣實矣, 土實則心氣不能傳之于子, 故喘滿也. 腎主水, 其色黑, 土克則傷腎, 故色黑而腎氣不平. 陽明絡屬心, 子母之氣相通也, 五味入胃, 苦先入心, 味過于苦, 則母氣盛而胃氣強, 胃氣強則與脾陰相絕矣, 脾不為胃轉輸其津液, 而脾氣不濡矣, 脾不轉輸, 故胃氣乃厚. 沮, 音咀. 沮, 遏抑也. 弛, 懈弛也. 金氣偏盛則肝氣受傷, 故筋脈地懈也. 央殃同. 辛甚則燥, 津液不能相成, 而精神乃受其殃也.”

15)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22~23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가들은 五味의 오행배속에 의거해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甘味の 경우는 滯緩한 성질로 인해 병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고, 苦味の 경우는 堅燥한 성질로 인해 병변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五味의 성질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다만 오행간의 상관관계, 특히 오행의 相克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찬국 교수는 주로 五味의 성질, 즉 酸味(수렴), 甘味(완만), 苦味(건고), 辛味(발산)로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五味를 오행의 배속에 맞추는 설명에서 탈피하여, 酸-肝, 鹹-腎, 甘-心, 苦-脾의 배속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辛味の 경우 오장배속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sup>16)</sup>.

3. 논자의 견해

논자는 이 문장의 원문 교정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원문을 보존하는 주장을 따르되, 오미와 오장의 배속에 대해서는 『素問·藏氣法時論』의 내용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藏氣法時論」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心欲軟, 急食鹹以軟之, 用鹹補之, 甘瀉之.

“酸者, 肝之味, 過酸則肝氣以津, 肝氣以津, 肝木盛也, 肝木盛, 則脾土受制, 故脾氣乃絕. 是酸味生肝, 太過則傷脾矣. 鹹者, 腎之味, 腎主骨, 過鹹則大骨氣勞. 大骨, 腰高之骨, 腎之府也. 氣勞, 骨氣強盛, 能任其勞也. 短肌心氣抑者, 腎水盛, 則心火受制, 心氣不能從骨節而出于肌表, 故短肌心氣抑. 是鹹味生腎, 太過則傷心矣. 甘者, 土之味, 脾胃之所主也. 過甘, 則土氣盛, 而水受制, 水虛不能制火, 故心氣喘滿. 水受土制, 故色黑. 腎氣不衡, 衡, 平也, 是甘味生脾, 太過則傷腎矣. 苦者, 心之味, 過苦, 則火克肺金. 肺者, 天也, 脾者, 地也, 天氣不降, 則地氣不升, 故脾氣不濡. 濡, 灌溉也. 脾為濕土, 胃為燥土, 兩土相齊. 今脾氣不濡, 則胃氣過燥, 故胃氣乃厚. 厚, 燥實也. 是苦味生心, 太過則肺金受制, 不與地氣相交矣. 沮, 作阻, 央, 作殃. 辛者, 肺之味, 過辛, 則肝木受制, 不生心火, 故筋脈阻弛. 筋者, 肝所主, 脈者, 心所主也. 筋脈阻弛, 則陰精不濡于筋, 神氣不充于脈, 故精神乃殃. 是辛味生肺, 太過則傷肝矣.”

16)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55~56쪽

脾欲緩，急食甘以緩之，用苦瀉之，甘補之。  
肺欲收，急食酸以收之，用酸補之，辛瀉之。  
腎欲堅，急食苦以堅之，用苦補之，鹹瀉之。<sup>17)</sup>

이 문장은 오장의 苦欲補瀉와 관련된 문장의 일부분이다. 오장의 苦欲補瀉 이론은 오미의 배속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의거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문장에서 제기한 오장의 “欲”은 오장이 邪氣의 침입을 받아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장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8)</sup>. 본문에서 제기한 “散, 軟, 緩, 收, 堅”은 오행의 속성인 “生, 長, 化, 收, 藏”과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欲”의 의미는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오장 본연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병이 든 상태이므로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藏氣法時論」에서 말하는 五味の 補瀉는 精氣를 補하고 邪氣를 瀉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 補는 오장이 하고자 하는 欲의 방향대로 도와주게 되므로 補라고 하였고, 瀉는 補法에서 나타난 氣의 흐름과 반대로 작용하기에 瀉라고 표현한 것이다. 즉, 補는 邪氣에 의해 억제를 받고 있는 오장이 본래의 성질을 되찾게끔 氣의 흐름을 소통시켜 주는 것이고, 瀉는 補法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오장 내부의 氣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19)</sup>. 그러므로 瀉法에 쓰이는 味는 오장의 本味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20)</sup>.

1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88~89쪽

18) 白裕祖,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に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1쪽

19) 前掲書, 11~12쪽

20) 前掲書, 12~13쪽

肝, 脾, 腎의 경우는 瀉하는 味가 五藏의 本味와 동일하다. 다만, 心은 甘味, 脾는 苦味로 되어 있어 本味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백유상은 甘味는 陽氣를 보충하여 心火를 돕고, 苦味는 脾에 생기기 쉬운 濕邪

이상에서 제기한 「藏氣法時論」의 오장과 오미의 補瀉 가운데 瀉에 해당되는 味를 오장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肝- 酸, 心- 甘, 脾- 苦, 肺- 辛, 腎- 鹹

이 내용을 가지고 「生氣通天論」의 五味傷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味過於酸, 肝氣以津, 脾氣乃絕

酸味는 肝과 관련되고, 또 수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酸味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肝氣가 퍼지지 못하고 수렴되어 넘치게 되고, 木이 盛하여 木克土를 하게 되므로 脾氣가 끊어지게 된다.

#### 2) 味過於鹹, 大骨氣勞, 短肌, 心氣抑

鹹味는 腎과 관련되고, 骨은 五體 가운데 腎의 體이다. 그러므로 鹹味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腎氣가 盛해지고, 腎이 주관하는 骨의 활동이 지나쳐 수고롭게 된다. 또한, 水克火로 인해 心의 활동이 위축되므로 心血의 영양을 받는 肌肉이 위축되고 心氣가 억제되는 것이다.

#### 3) 味過於甘, 心氣喘滿, 色黑, 腎氣不衡

甘味는 心에 관련되고, 또한 緩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甘味가 과다하게 되면 緩한 성질이 지나쳐 滯緩하게 되어, 心氣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心氣喘滿”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甘味の 과다섭취로 心火가 亢盛하게 되면 津액이 타게 되므로 얼굴색이 검게 되고, 水火不濟로 인해 腎氣不衡하게 된다.

#### 4) 味過於苦, 脾氣不濡, 胃氣乃厚

苦味는 脾와 관련되고, 燥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苦味는 燥한 성질로 脾의

를 제거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濕邪를 제거하여 脾의 운화작용을 돕게 된다. 그러나 苦味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脾가 운택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脾氣不瀟”이다. 脾가 적셔지지 못하여 건조해지면 운화작용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胃에서 腐熟작용이 끝난 수곡지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 胃가 두터워지는 것이다.

### 5)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央

辛味는 肺와 관련되고 發散하는 성질이 있다. 辛味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金氣가 盛하게 되어 金克木하게 되므로 肝이 主하는 筋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發散의 작용이 과다하므로 筋脈이 늘어지고 막혀게 된다. 또한, 辛味の 과다로 氣를 발산시키는 작용이 지나쳐 氣가 浮越하게 되는데, 神氣도 氣를 따라 흩어지므로 精神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 III. 結 論

『素問·生氣通天論』의 五味傷과 관련된 내용은 五藏이 五味에 의해 영양되지만, 五味가 지나치게 되면 도리어 五藏을 傷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이 문장과 관련된 역대 의가들의 해석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五味를 오행배속과 맞추면서 기존의 오행배속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본문을 수정하는 것이니, 楊上善과 丹波元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甘味와 苦味の 경우 오행배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본문의 내용을 甘-脾, 苦-心의 배속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五味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니, 대부분의 의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五味의 과다에 의해 나타나는 병변에 대해 대부분 오행간의 상호관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오행의 상호관계로 해석이 힘든 甘味와 苦味, 辛味 등의 경우는 味の 성질로 설명하기도 한다. 셋째, 오행 배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五味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로 설명한 경우이다.

「生氣通天論」의 五味傷과 관련된 문제는 「藏氣法時論」에 기술된 五藏의 苦欲補瀉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두 편의 내용을 연결하여 五味와 五藏을 관련시켜보면 肝-酸, 心-甘, 脾-苦, 肺-辛, 腎-鹹의 배속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배속관계는 기존의 오행배속과 관계가 없지만, 五味의 성질 酸(收斂), 苦(堅燥), 甘(緩), 辛(發散), 鹹(軟)을 이용하면 오미의 과다에 의해 나타나는 병변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 參考文獻

1.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2. 郭瀛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3. 丹波元堅, 『素問紹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4. 馬蒞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5.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6. 白裕相,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7. 楊上善 撰注,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8. 吳崑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9. 張介賓 編著, 『類經』, 一·中社, 1980
10.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注』,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